

실크의 역사 (2)

중국의 실크가 유럽으로 전달되던 길,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인데,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던 길, 중국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교류되던 길, 이 길에 실크로드(중국명:사주지로[絲綢之路])란 이름을 붙인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지리학자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 1833~1905)으로서, Seiden Strassen 즉 Seiden은 실크, Strassen은 길이 되어 영어로 Silk Road가 되었다. 이 길을 통하여 말이나 낙타 등에 실려 많은 견직물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고, 다른 유럽 제품이 동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기원전 1000년경의 고대 이집트 유적에서 중국의 견직물 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고대 로마에서도 실크는 상류계급의 의복으로서 사랑을 받았고, 기원전 1세기에 이집트를 점령한 유럽인들이 실크의 교역을 위하여 해로를 이용하여 인도로 진출하고, 그 일부가 중국에까지 건너가게 되었다.

6세기에 들어오면서 실크 제품의 생산 방법이 동로마에 들어갔으나, 품질이 중국제만 못하였고, 생산량도 적어 중국제 실크 제품이 동서 교역의 중요한 상품이 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1146년 시칠리아 왕국의 룯제로 2세(Ruggero II)가 자기나라에서 양잠을 시작하여 실크 직물을 만들고, 한편 베네치아가 열심히 교역을 함으로써 이탈리아 각지에서 실크 직물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프랑소와 1세는 이탈리아 실크 기술자를 리용으로 불러와 실크 직물 생산에 들

어갔다. 이렇게 하여 리용이 근대 유럽의 실크 중심지가 되었다.

아울러 종교 개혁으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프로테스탄트를 받아드린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 이후 몇 번씩 실크의 국산화를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고, 겨우 식민지 미국에서 성공하였으나 미국도 독립하여 버렸다.

그러나 영국은 다른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산 실크 생사를 확보하려는 의욕이 강하여, 이것이 영국과 당시의 청나라와의 무역 불균형, 나아가 아편전쟁의 불씨가 되었다는 설도 나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1170년 기자 조선시대에 기자가 누에 씨를 들여와 기술을 기른 후에 삼한시대에는 양잠과 제직 기술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중국의 견직물이 서역으로 가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하여졌었다.

삼국시대에는 일본으로 가는 교역품으로 견직물이 주목되었고, 2-3세기에는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양잠에서부터 제직 기술을 전수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 견직물은 국가의 보호 하에 중점적으로 육성되었고, 고려시대에는 귀족들만이 견직물로 된 옷을 입도록 생산을 제한하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세종대왕께서 당시의 언문으로 된 양잠서를 보급하고, 중종이 잠서언해(蠶書諺解)란 책을 발간하여 양잠을 독려하였다. 그 후에도 고종 때에는 농잠집요(農蠶輯要)란 책을 편찬하는 등 역대 왕들이 양잠과 제직을 장려하였다.

서울의 남산 모습이 누에와 닮았다고 하여 잠두봉(蠶頭峰)이란 별명이 있었고, 양잠의 장

려를 위하여 서울의 동서남북 사방에 뽕나무를 심도록 하였으며, 밤섬 부근에 남잠실, 성북구 일대를 선잠단, 연희동 일대를 서잠실, 현재의 강남구 잠원동 일대와 송파구 일대를 동잠실이라 하여 잠업을 장려하였다.

일본 강점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누에고치의 80%를 일본으로 가져갔고, 해방 후에는 지지부진하다가 5.16 군사혁명 후에 견직물의 생산 장려로 양잠업과 제직업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1980년에는 5-6억불의 외화를 획득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생사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양잠산업은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었다. ♣ (공석봉)

